

인공판막을 치환받은 산모에서의 임신

연세대학교 심장혈관센터 심장혈관외과, 산부인과학교실*

이석열·장병철·박한기·유경중·강면식·조범구·박용원*

심장판막의 질환으로 인공판막치환술을 시행받은 여자들에 있어서 항응고제가 임신의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연세대학교 심장혈관센터에서 1980년 1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심장판막 치환수술을 시행받은 환자 중 35세이하의 여자환자는 334명 이었다. 이들중 임신을 경험한 31명을 대상으로 임신중 항응고치료 및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31명 환자의 수술당시 평균나이는 25.2+5.5세였다. 31명의 환자중 조직판막 치환술을 받은 환자는 17명, 기계판막 치환술을 받은 환자는 14명 이었다. 조직판막과 기계판막 치환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수술당시 평균나이는 23.4+4.7과 27.4+5.8세였다. 조직판막의 17명은 대동맥판막 치환은 1례, 승모판막 치환은 15례, 삼첨판막 치환은 1례였다. 기계판막으로 치환받은 14명에서 대동맥판막 치환은 1례, 승모판막 치환은 10례였으며, 대동맥판막 및 승모판막 치환수술이 3례였다. 조직판막으로 치환받은 17명에서 임신은 24회가 되었고, 기계판막을 치환받은 14명에서 임신은 16회로 총임신회수는 31명에서 40회가 있었다. 분만시 환자들의 평균나이는 29.8+4.7세였다. 조직판막으로 수술한 17명 환자들의 24 임신례들중 건강아 출산은 22례 (91.9%)였다. 치료적유산과 자연유산은 각각 1례 (4.2%)였다. 기계판막으로 수술한 14명 환자들의 16회 임신례에서는 건강아출산이 11례 (68.8%)였다. 치료적 유산이 2례 (12.5%), 자연유산이 1례 (6.3%), 사산은 2례 (12.5%)가 있었다. 좋지않은 임신결과를 보인 7례를 분석하면 조직판막을 치환받은 2례중 heparin 항응고 치료를 받던 1례에서는 자연유산이 있었고, 항응고 치료를 받지않던 1례에서는 원치않는 임신으로 치료적 유산을 하였다. 기계판막을 치환받은 5례중 임신사실을 모르고 warfarin을 사용한 4례에서 자연유산 1례, 치료적 유산이 2례 있었다, 임신중 계속 Warfarin을 복용한 1례에서는 임신 38주에 사산이 되었고 임신 첫 3개월동안 Aspirin과 Dipyridamole을 사용한 1례에서는 임신 23주에 사산이 되었다. 판막치환 수술후 임신을 원하는 경우 warfarin 합병증을 피하기 위하여 heparin으로 항응고 치료를 한 환자 9례중 1례에서만 자연유산이 있었으며 heparin에 따른 심각한 합병증은 없었다. 따라서 젊은 여성에서 판막치환이 필요한 경우 조직판막을 고집하지 않고 기계판막을 사용하여 임신중 항응고요법으로 heparin을 이용하면 안전한 분만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임신후 항응고 치료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하여는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